

천명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시편 91:1-16, 히브리서 11:32-40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재앙을 막도록,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주역 (히11:1-2, 11:38)

1.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히11:1-2)

- (1)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다.
- (2) 하나님은 내 삶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 (3)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2. 믿음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히11:3-38)

- (1)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 (2) 복음을 체험하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 (3) 세상을 살리는 상속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
- (4)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 (5)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누리게 된다.
- (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게 된다.
- (7)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의 사람이 된다.

결론 : 천명무패, 천명필승, 천명완성을 체험하는 믿음 (히11:38-40)

지난 9월에 교회 창립 47주년을 지내면서, 아무래도 50주년이 될 때에는 우리 교회의 회년이 되고, 현당의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기획해서 기념을 하자, 현당의 응답을 대표적으로 받을 70가정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경로부에서 이 기도제목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 같다. 그 중에서 한 가정이, 현당의 주역이 될 70가정의 응답을 처음으로 받았다. 김원일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 경동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부인이신 전인숙 전도사님이 우리교회 전도사님이시다. 전도사님은 돈을 버는 분이 아닌데, 이 제목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다. 70가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오려서 기도했는데, 김원일 집사님이 그것을 보고 '집이 팔리면 그 1억 원 내가 줄게.' 그랬던 모양이다. 그런데 팔리지 않던 그 집이 팔리면서 정말 1억 원을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기도야 왜 못 하겠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천명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제목을 잡았다. 사실 천명은 받는 것인데, 오늘 제목을 체험이라고 굳이 쓴 이유는, 천명무패, 천명필승, 천명완성 세 가지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확하게는, '천명(무패, 필승, 완성)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6월 안으로 메르스가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인다. 우리 교단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를 하는데, 한기총에서 6월 안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더니, 그것도 6월 안에 안 될 것 같다. 메르스라는 질병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얼어붙은 것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의 내수시장 모습을 신문에서 한겨울이라고 표현했는데, 메르스 상황은 빙하기가 왔다고 표현했다. 겨울 정도가 아니라 얼어붙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다. 메르스가 이렇게 번지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중동에도 없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다.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문화가 더 심해질 것이고, 재앙도 따라서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자로 살아남고, 또 현장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재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자세히 알아야 한다. 지금 재앙

의 실체는, 질병보다도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다. 질병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질병을 두고 겁을 먹는 것, 온 나라가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 더 문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것들 말이다. 재앙을 피할 뿐 아니라, 재앙을 막는 영적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그렇게 받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밀어닥쳤을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을 독려하면서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우리는 두려움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 모든 현장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이기는 믿음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를 두고,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1.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다. 히11:1-2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 선조들이 증거를 얻었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는가?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1)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12가지 문제 속에 있다.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타락에 빠지고, 무너질 가짜 성공을 따라가는 창3장, 창6장 네퍼림, 창11장 바벨탑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이라는 문화가 되어서 가정, 가문, 개인을 멸망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영혼, 정신, 육신에 오는 문제를 이길 수 없고, 개인의 심판과 가문의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뒤로 물러나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목상해왔던 히브리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선택하시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첫 번째로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다.

(2)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유를 두고 부르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빌립보서 2:13은 말씀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복음이 없어서 멸망해 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나와 우리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소원과 계획을 위하여,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또한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랩넌트들이 특별히 믿어야 한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3)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해낼 수 있다. 오직 성령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서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다. 이 말씀을 기

룩한 것은, '너희도 믿으면 이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을 뿐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믿은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능력을 체험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늘의 명령, 곧 천명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성령충만으로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이다. 이것을 믿으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천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2. 믿음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던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다. 그들이 받은 엄청난 응답을 우리가 똑같이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쪽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1) 11장 3절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이 세상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4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오늘 우리 속에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2) 11장 4절에는 말씀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피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복음을 받고 믿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한 바가 되었다.

(3) 11장 7절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직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믿고 방주를 지었는데, 세상을 살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네피림 시대에, 21세기 방주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바로 이런 세상을 살리는 상속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도 믿게 되기를 축원한다.

(4) 계속 읽어보면, 9절에는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언약을 이어받는 주인공이라는 말이다.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어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된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총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다.

(5) 16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땅에 사는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이 천명을 믿을 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된다고 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진짜 본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말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다른 세계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3:20은 말씀한다. 선지자 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6) 모세는 어떤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는가?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했다.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렸다.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 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예비된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눈을 떠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준비된 것을 보기를 축원한다.

(7) 결국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기지는 말하기를, 자신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정리하기를,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될 승리다. 요한일서 5:4에 말씀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위기 시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승리자가 되는 우리 참사랑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오게 되는 세 가지 체험이 있다. 이미 우리는 천명을 다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천명 가진 자에게 오는 축복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그 시대에 임했던 재앙과 저주의 흐름을 막는, 복음의 흐름을 이어받는 증인들이었다. 그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 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다.

(1) 이 천명의 비전을 받은 자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그것이 천명무패다.

(2) 이 천명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천명필승이다. 삶에서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란다.

(3)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11장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했다. 이것이 천명 완성이다.

이 세 가지 천명의 응답을, 오늘부터 기도 속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기도 속에서 믿음을 회복할 때, 반드시 이 증거가 오게 될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면 너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말은,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바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사람이 되도록, 천명무패·천명필승·천명완성의 믿음을 누리는 한 주간, 남은 생애 되시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중에, 믿음의 위인들이 모여 있는 11장에 도달했습니다. 천명무패를, 천명필승을, 천명완성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장엄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이 악한 시대에, 그때보다 수백 배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하여, 그들이 누렸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으니, 이 언약을 잡고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선조들이 받은 축복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을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메르스가 물러가게 하시며, 가뭄이 끝나게 하시며, 민족의 마음에 온 두려움이 떨쳐지게 하시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세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 되도록, 3부요인과 온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